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스트릿 호노룰루.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 정 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 창 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호수	1751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구 5월27일 금요일	Issue No.	1751
		Date	July 11, 1969: Fri.

비에트냄등 분쟁지를 제외한 재외기지주류미군을 삭감지령

(와싱톤 7월9일발, 에이피) 백아관의 발표에의하면, 닉슨미대통령은 9일, 오는 일년간에 해외기지주류미군중 1만4천9백명의 철퇴를 지령하였다. 이것은 비에트냄, 한국은 위시하여 분쟁지역에 주류하고있는 병력은 포함하지안모있다. 이것과동시에, 해외주재의 정부 민간직원도, 남비에트냄에서 10% 삭감되는것을 위시하여, 전세계에걸처서 5천백명 감원된다. 이 군.관 양 분야에서의 감원은 "예산축소에 따라서 인권비의 균형을 도모하고, 해외에있서서의 미국의 존재를 경감한다" 가 목적이고, 이것에의해 년간 7천4백만불의 예산이 삭감된다고한다. 주류군의 철퇴의 대상이되지안는 지역은, 비에트냄, 한국외에 버-린, 동남아세아에서 미원조군이 주류하고 있는 제국, 기타 북대서양조약기구소속의 병력으로, 약 85만명, 해외주류군의 총병력은 약 백만명이다.

비에트냄철퇴미군제一진 귀국도중

(사이곤 7월8일발, 에이피) 닉슨대통령결정에의한 2만5천명철병의 제1진으로서, 제9보병사단 60연대3대대 814명이 오늘 사이곤교외 단손니엣트공항을 리육, 고국으로 향하였다. 귀환병은 작업복의상으로, 새벽 사이곤 남방 40마일의 돈담기지로부터 도착하였다. 공항에서는 화려한 송별식이 기다리고있섯다. 이전원조군사령관이였든 웨스트모아랜드 육군참모총장도 와싱톤으로부터 공로도착, 귀환병중의 5명에 훈장을 수여하였다. 에이부람스원조군사령관은 "미국인은 모두 제군의 공적을 자랑하고있다. 제군은 역사의 의의있는 한장을 형성하였다" 라고 인사하였다

추대통령도 송별

미군인들이 수송기에 탈랴고 움직이기시작하였슬때, 추남비에트냄대통령과 비국방장관이 공항에 나왔다. 두사람은 군인들과 악수하고, 비에트냄에서의 그들의 고생을 위로하였다. 추대통령은 "우리들은 우리와같이 싸워 공산주의자의 침략을 격퇴한 당신들에 감사한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였다" 라고 인사, 제9사단의 전사자 수천명을 들어 애도의 의사를 표한후 "이 희생이 허사가 아니라는것을 확실하게하는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아직 진우인원, 물자의 지지가 필요하나, 차차로 타국의 사람의 피를 흘리지안하도록 하겠었다" 라고 말하였다. 비에트냄의 오전의 일광은 심하게 비치고, 귀국의 기쁨에 찬 그들은 선물을 옆에끼고, 각각 수송기에 타고 올랏다.

(제2면에 계속)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제1면으로부터 계속)

항감에 도착

미국에귀향하는 병사들태운 비행기제1편은 오늘 오전11시경, 인감공군기지에 도착하였다. 태평양동맹군사령부의 발표에의하면, 동기의 94명은 약두시간 휴식한후 미대륙으로 계속 날른다고한다 한편 제9사단의 철수에 대비하여 스코틀드병영의 준비를 마련하기위해 백명의 선발대가 오는 15일이나 16일경에 도착의 예정이다. 여단의 병원 약7천명은 8월2일 당지에 도착할 예정이나, 7월30일경으로부터 순차 도착할것으로보인다.

비에트냄 철회 제 二진 오끼나와로

(사이곤 7월10일발 에이피) 비에드냄철회제2진의 미해병대제9연대제1대대와 연대부속원을 포함하는 120명이, 10일 비무장지대남방 20마일의 관.치기지를 출발, 오끼나와에 도착하였다. 이것은 동연대8천명의 철회인원의 선발대로, 남어지의 병력도 수주간내에 오끼나와에 향할 예정이다. 제9연대는 후방부대로서 오끼나와에 주류한다. 이연대는 65년3월8일, 첫미군병력으로서 비에드냄전에 참가한 병력이다.

소련과의 전쟁을 중공이 예상? 미국지보도

(뉴욕 7월7일발, 공동) 뉴욕.타임스지는 6일, 동지홍콩특파원전으로서 "북경, 10월7가지에 대소전쟁을 예상" 이라는 제목한 놀랜만한 기사를 2면상부에 내여, 다음과같이보도하였다.

1. 최근 광주 (광동성성도) 에서의 고급관리의 비공식회담에서, 한 연설자가 소련과의 전쟁은 가까워지고있다고말하고, 대전은 10월7가지에는 시작한다고 말하였다.
1. 홍콩에 도착한 보도에의하면, 중국전도에서 같은 회의가 열려, 당국자나 민중에대해서, 전쟁이 가까웁다는 말이 전해지고있다. 그것은 모다 소련이 전쟁을 시작한다는것이였다.
1. 중공의 지도자들은 소련이 말하는 아세아 집단안보라는것은, 중공에의 침략활동이라고 해석하고, 신문론조에서 특별관심을 표명하고있다. 홍콩에서드른 방송에의하면, 중공군의 십부대가 내몽고와 흑용강성에 파견되였다고한다.

중공.소련 충돌, 중공의 공격을 비난

(모스크바 7월9일발, 에이피) 소련 하바로스크시 서방 40마일의 중.소국경 아물강에있는 골진스키도에서 8일, 중소양군이 충돌하였다. 소련측은 "중공군은 경기관총, 수류탄등으로 공격을 시작하여, 소련의 작업원 2명이 사망, 3명이 부상하였다" 라고 발표, 한편 중공측은 "소련국경경비대가 주정과 비행기에의해 섬에 상륙, 민가 한채를 태웠다" 라고 항의하고있다. 9일의 타스통신은, 아물강고등위원회의 울추모프위원장대리가 "중공측의 고의의 침입이다" 라고 전하였다.

소련최고회의, 데미운호를 희망

(모스크바 7월10일발, 에이피) 구쭘미코 소련외상은 10일 열린 최고회의에서 중요한 외교연설을 하고, 그중에서 국경문제등을시사하므로는 중공의 대소태도를 강하게 비난하고, 한편 미국에대해서 두나라간의 문제 기타 미해결의 국제문제에대해서 회담 양국관계개선의 희망을 표명하였다.

쿠바 행 소련함대를 미해군이 감시

(버_지니아주 노워_크 7월9일발, 에이피) 미해군대서양함대사령부대변인은 8일, 미해군이 친선방문을 위해 쿠바에 향하고있는 7척의 소련함대를 비행기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있다고 언명하였다. 동대변인은 소련함대는 미국의 연안으로부터 2백마일이상 떠러저있다.

중동의 충돌 격화

(이스라엘, 텔아비부 7월8일발, 에이피) 이스라엘군대변인은 "8일, 이스라엘점령지대의 고란고원에서 이스라엘군용기는 시리아군 미구전투기와 30분의 공중전을 전개 시리아기 7기를 격추하였다" 라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67년의 중동전쟁이래, 이스라엘대 애랍군의 단일의 전투에 있서서의 손해로서는 최대의 것이다. 이스라엘군은 또 "7일밤, 스에즈운하지방의 침사호와 요단 제곡에서, 애랍의 유격대 18명을 죽였다" 라고 발표하였다. 이스라엘군에의하면, 애랍측이 한번에 이만한 사망자를 낸것도 중동전쟁이래의 일이다. 한편 카이로방송은 "침사호의 전투에서 우리군은 이스라엘병 3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사령차, 탱크 압제 3대를 파괴하였다" 라고 보도, 애랍측의 손해는 사망 1명, 부상 5명이라고 말하고있다. 요단의 대변인은 7일밤, 이스라엘, 요단군은 휴전선에다다라서 포화를 나누고, 요단군은 이스라엘의 탄약집적서를 파괴하였다. 중동의 충돌이 격화하고있는 현재, 이스라엘은 내정면에서도 심각분열의 위기를 마지하고있다. 여당의 노동당당원중, 다얀국방장관이 영도하는 이스라엘노동당입파는, 노동당으로부터 독립, 신당의 결성을 협의하였다. 골다.메아수상은 이협의 집회에서 " 이스라엘의 유사시, 이러한 분열은 슬픈 일이다" 라고 말헌, 퇴장하였다.

극동의 안전보장에 일본의 공업력과 미국군사력

(매사추셋주 랜부릿지 7월10일발, 공동) 라이샤와 전주일대사는 9일, 극동의 안전보장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그의 공업력이 없섯드라면, 한국을 방위하기 어렵다. 또 미국의 군사적약속이 없스면, 제2의 한국전쟁이 곧 일어나며, 일본은 가장 큰 손실을 입을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1. 미국의 군사력의 존재는 일본을 중공이나 소련으로부터 보호하려는것이아니고, 해상의 자유와 어떡서든 국지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1. 오끼나와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않으면, 일본.미국안보조약은 소용이 없게될것이다. 일본 미국관계의 최근의 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의 하나는, 예를들면, 1970년의 1월1일에 오끼나와를 반환한다는 정치적반환의 시기를 명시하는것이다.
1. 일본은 일.미안보조약이 있기때문에, 재군비라는 대문제를 면하고있다. 만일 미해군 공군이 없다면, 일본은 자기방위의 부담을 인수하지안으면안될것이다.

미국, 일본 상호의 신뢰로 오끼나와 반환교섭

마이야 미국대사 담

(동경 7월8일발, 공동) 마이야주일미대사는 8일오후, 동경.아끼사까의 오렘.오후타에서 착임후 첫번의 내외기자단과회견, 오끼나와반환문제로 "6월초순의 아이지 외상의 방미에서 금후의 교섭의 파제에대해서 확신한 토대이 되였고, 일본미국사상방의 공동의 목표에향해서 교섭이 진전되게되였다" 라고 반환교섭이 궤도에 올른것을 명백히하였다. 또 대사는 (1) 교섭은 상호의 신뢰와 이해가 필요하며, 그 점신에다라서 진전된다고 생각한다. (2) 미국측은 오끼나와를 서태평양의 안정과 평화라는 구역안에있는 오끼나와로보고있다. (3) 오끼나와반환교섭은 대립하고있는 나라끼리 교섭하는것이 아니고, 서태평양지역의 평화, 안전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두 우호국이 이야기하는것이다. (4) 아이지 외상과의 계속협의는 될수있는데로 속히 시작하겠는데, 구체적인 날자는 아직 확실히 정하지안고있다 등을 말하였다. 그러나 기자단의 (1) 오끼나와 반환은 비에드냄전쟁종결이 하나의 조건이냐 (제4면에 계속)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제3면으로부터 계속)

(2) 오끼나와의 핵병기는 미측에 필요하냐 등 핵심문제에대한 질문에는 "현재 정확한 대답은 할수없다" 라고 언급을 피하였다.

일.미 경제 문제

한편 일본 미국경제문제에서는 (1) 7월말의 일미무역경제합동위에의 미측각료의 출석수가 어떠한지, 일본에대한 닉슨정권의 관심이 저하하고있다고는 절대로 말하수없다. (2) 오끼나와반환문제와 일미 경제문제는 별개의것이다. (3) 일미간에는 무역상의 균형이 안정치안으며, 작년에는 미측이 11억불의 수입초과를하고있다. 국내에는 이 불균형이 계속된다면 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론이 있는데, 정부측으로서는 상호의 무역확대를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희망하고있다 (4) 7월의 합동위에서는 공표할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대답하였다.

애폴로 十一호 준비완료

(케이프.케네디 7월10일발, 에이피) 발사를 내주 수요일에 마지막고 달우주선 애폴로 11호의 타겟으에 고장이 발견되어, 시간초령의 예정을 지연시킬것이 염려되어있었는데, 오늘 기사들은 고장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 우주중앙당국에서는 예정데로 하와이시간 10일 오후 2시에 시간초령 개시를 한다고 말하였다.

우주복 한벌에 三十만불

인류첫번의 달착륙을 목적으로하는 애폴로11호의 발사는 일주일후로 다가왔다. 달비행, 우주에라고말하면, 곧 생각나는것은 "우주복"이다. 어려운 미지의 우주환경으로부터 비행사를 보호할 우주복은 은색으로 빛나는 모양이 조은것인데, 한벌에 30만불 가까이든다고한다.
우주복은 미국의 경우, 세종류가 있다. 우주선속에서 비행사가 실적에 입는 보통의 작업복인 "선내작업복", 발사와 닥킹시등 위험한 작업을 할때에 입는 "선내우주복", 그리고 이에 부분적으로 접힌 "선외우주복" 이다.

인사소식

우리일반이 잘아는 본항의 손노디여사는 지난 봄에 도미하여 친척을 방문 5월초에 와환하여 약 1주일간 체류후에 소련사도 환국하여 분일을 마치고, 7월6일에 무사히 와환하였다는데, 작년에 이랜에 파송되여 본층학을 연구실습하고있던 손노디여사의 사위 남바박사도 금월초 7일에 예정한바 임기를 마치고 귀환하였다는데, 동박사는 구직인 하와이대학에서 다시 교편을 잡게될터라고한다. 또 손노디여사가 전하는바에의하면, 리승만박사의 동상설립에대해서는 한국내의 요인들과 타협의론할결과 내년에 설립하기로 작정되였다고한다.

하와이한인연합회의 신임원들

하와이한인연합회에서는 지난 6월총회에서 1969-70년도의 새임원개선을하였는바, 새회장에 앤드루 리씨, 부회장에 매뉴얼.권씨, 서기에 윌라.김씨, 재무에 오건창씨, 감사에 문덕만씨가 각각 피선되였다고하며, 연합회원 환고책식은 오는 14일오후 6시반부터 홍콩 중국요정에서 개최한다고한다. 또한 2년간 연합회회장으로 시무하시던 김창원씨는 특별회원으로 피선되였다고한다.

라성에 새 신문 탄생

한미연합신문 (코리언.아메리칸 타임스)이 라성에서 주간지로 탄생하여 갑론이 일어나는 세계뉴-쓰, 한국내사정, 라성을 위시한 북미소식등 한인사회의 활동동향을 상세히 전하고있는데, 동신문은 장시화씨가 발간인, 주필, 사장으로 발간되고있다. 동지의 발전을 축하한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